

에릭 “‘또 오해영’ 만난 것은 큰 행운”

“출연진과 연출진 시청자가까지 같이 만드는 느낌”

“은 우주가 우리를 돕는 것 같았어요.”
 드라마 ‘또 오해영’을 끝마친 배우 에릭(37)은 “이번(드라마) 작업은 정말 즐거웠다 너무 즐거워서 현실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 우주가 돕는 상황은 시청률에 국한한 이야기가 아니다. 에릭은 “출연진과 연출진 그리고 시청자까지 같이 만드는 느낌이 있었다”고 했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도경(에릭)과 해영(서현진)이 집 앞 담벼락에서 키스하는 장면, 그때 그 벽에는 ‘THIS IS NOT REAL(이건 현실이 아니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시청자들은 이를 두고 “세실한 연출”이라고 평했다.
 에릭은 이를 두고 “그건 정말 우연이었다 시청자가 그걸 또 좋게 봐준 거다 좋게 포진된 거다. 그렇게 자주 의도하지 않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또 오해영’은 큰 성공을 거뒀다. 마지막회(28일 방송)는 평균시청률 10%를 넘겼다. 이는 tvN 개국 이후 월화드라마 최고시청률이다.
 연기 경력만 어느덧 13년, 에릭은 연기하면서 힘든 현장을 자주 겪었다. 2006년, 드라마 촬영 중 큰 부상을 당해 하차했다.

그 드라마는 방송 도중 제작이 무산됐다. 2011년에는 동료 배우가 촬영장에서 이탈하는 사고도 있었다. 그 배우는 다시 돌아왔지만, 드라마는 힘이 빠졌다.
 “사고 없이 웃으면서 촬영하고, 시청률까지 높이는 쉽지 않아요. 분위기가 협박한 현장을 많이 겪었어요. 100% 만족한 현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오해영’은 현장부터 달랐어요.”
 에릭은 드라마의 여운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즐거웠던 현장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듯 했다.
 차분했지만 자주 웃었고, 그때의 즐거움에 대해 반복해서 말했다. 연기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있었냐라고 묻자 “아쉬운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캐릭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없었다”고 했다.
 배우들은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작품을 겪고 나면 배우 경력의 변곡점을 맞곤 한다. 그런 경험은 배우로서 연기에 대한 자신감 혹은 생활인으로서 인간적인 성숙으로 발현된다. 에릭은 이런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또 오해영의 즐거움이 끝난 부분을 아쉬워 했다.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지는 일이 또 있을까요. 배



드라마 ‘또 오해영’을 끝마친 배우 에릭(37)은 ‘이번(드라마) 작업은 정말 즐거웠다. 너무 즐거워서 현실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들이 일하면서 자신의 인생작 하나 남기게 될까봐 어려워요. 또 오해영을 만났던 건 정말 큰 행운입니다. 앞으로 다음 작품 하게되면 이보다 좋을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신중해질 것 같아요.”

/김민근기자

그룹 언니쓰 ‘셋 업’ 음원차트 올킬

그룹 언니쓰가 음원차트 1위를 휩쓸며 가요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일 0시 발표한 데뷔곡 ‘셋 업(Shut Up)’은 멜론, 네이버 뮤직, 엠넷, 벅스, 지니, 소리바다, 몽키3 등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이날 오전까지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언니쓰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서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꿈계를 결성한 라미랑 김숙, 홍진경, 민효린, 제시, 티파니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이다. 걸 그룹 데뷔라는 민효린의 꿈을 위해 결성됐다.
 방송용 프로젝트였는데 일이 커졌다.
 데뷔곡 ‘셋 업(Shut Up)’은 가수 겸 히트 프로듀서 박진영이 만들어 전담 프로듀싱 했고, 유희열이 피쳐링과 뮤직비디오에도 참여했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멤버들의 진지한 모습도 화력을 더했다.
 ‘셋 업’은 나쁜 남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강한 여성상을 표현한 정통 펑크 곡이다. 강한 비트와 신나는 멜로디, 중독성 있는 가사가 귀를 사로잡는다. 노래가 주 전공이 아닌 멤버들의 개성 있는 보컬과 스피릿 넘치는 전사 제시의 힘 있는 래핑, ‘소녀시대’ 티파니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완성도를 더했다.

/김민근기자

강민아, KBS드라마스페셜 ‘동정 없는 세상’ 출연

탤런트 강민아(19)가 오는 8월 방송될 KBS 드라마스페셜 ‘동정 없는 세상’(극본 유정희·연출 김동휘)을 이끈다.
 ‘동정 없는 세상’은 할기양성환 10대의 남치는 호기심을 유발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은 성장 드라마다. ‘아내가 결혼했다’로 유명한 박현욱 작가의 소설 ‘동정 없는 세상’을 원작으로 한다.
 소속사 이메이지아시아(구 웹메이스트)에 따르면 강민아는 전교 5등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는 우등생 ‘윤서경’을 연기한다. 철없는 남자친구 ‘준호(이주승)’ 때문에 고민에 빠지지만 현명하고 신중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반듯한 여고생이다.
 앞서 영화 ‘봉숭아 학당’ ‘청포도 사랑’ ‘17년 전의 약속’ ‘남자가 사랑할 때’ ‘히야와 드라마 ‘사랑아 사랑아’ ‘장옥정, 사랑에 살다’ ‘선암여고 탐정단’ ‘발칙하게 고고’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경력을 쌓은 강민아의 활약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다.

/김민근기자

송중기, 중국인이 뽑은 ‘한국 대표 배우’ 1위

드라마 ‘태양의 후예’(KBS 2TV)로 대세 한류스타가 된 배우 송중기(31)가 중국인이 뽑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설문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마케팅협회가 주관하고 설문조사 플랫폼 킬리언이 중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중국인이 사랑하는 한국의 명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중기는 42.0%의 지지를 얻어 ‘중국인이 사랑하는 한국 대표 배우 1위’를 차지했다.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와 호흡을 맞춘 송혜교는 2위(15.0%), 대표 한류스타인 이민호는 3위(7.1%)에 올랐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67.4% 지지를 얻어 중국인이 뽑은 한국 대표 드라마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중국인 사랑하는 한국 대표 가수 1위에는 그룹 빅뱅(31.0%)이 올랐다. 2위는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13.8%)이, 현재 가요계에서 가장 뜨거운 한류스타로 떠오른 황치열이 3위(9.1%)에 올랐다.
 중국인들은 ‘탄닝뎬’(SBS)을 최고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으로 꼽았다. ‘탄닝뎬’은 무려 85.9%의 지지를 얻었다. 2위는 ‘무한도전’(9.5%), 3위는 ‘나는 가수다’(1.6%)였다.

/김민근기자

청소년클럽대항 생활체육 무예대회 13일까지 참가접수

청소년 종합 체육 축제의 장 2016 청소년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청소년 무예대회의 참가접수가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해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도내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축구와 농구, 검도, 태권도, 합기도 등 5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태권도를 제외한 4개 종목은 1일부터 13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를 받는다. 태권도는 타 종목과 다르게 7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체육회 홈페이지(www.jsports.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매 해 2,000여명 이상의 학생이 참석했고 올해도 2,700여명 이상의 학생이 예상돼 응급조치 및 안전대책에도 만

전을 기 할 예정이다.
 경기에 참석하는 학생 모두 스포츠안전재단 단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모든 경기장에는 의료진과 구급차량을 대기시켜 놓을 예정이다.
 그동안 청소년을 비롯한 어르신 및 여성 생활체육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에 앞장섰던 도 체육회는 23년째 열리고 있는 청소년클럽대항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는 대회를 마치고 성적에 따라 우수클럽을 초청해 청소년을 위한 문화축제 공연을 전북여성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축제는 청소년클럽대항 및 무예대회의 시상식과 밴드 등의 문화공연과 각 종목의 시연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김민근기자



여름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도내 일원에서 개최된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